

# 김미화 氏 월간문학세계로 등단

##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스가 되고 싶다”



김미화 시인

### 포천에서 20대 중반에 쓴 300여편에서 당선작 나와

“고통이었다. 살아서 숨 쉰다는 것이 언제나 삶과 죽음 사이에 어 정정하게 앉아 철저히 게 스스로를 비하해 으레 시키며 전혀 다른 각본을 숨차게 찾으며, 삶을 산 게 아니라 버틴 것이었다. 국문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저 노가다 잡부인 내가 그 와중에 시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 당선을 기뻐해 줄 부모도 언니,오빠도 없다. 그래

서 너의 감사와 기쁨은 다른 사람의 세 배다. 중학교 1학년때 국어 선생님이 시 50편을 외우면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날부터 외운 시를 일기장에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난다. 1년쯤 지나 세어 보니 시조까지 100편 정도 선생님께 전화해 시인이 된 것 같지가 않다고 하였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시인이 되긴 되었다. 적어도 날 믿어주는 한 구석은 생긴 셈이다. 할 일도 많아졌다. 지금부터 틀어야 하는 건 북이 아니라 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칼이 메스이길 바란다. 정교한 기술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메스, 아픈 누군가에게 위로와 치

료가 되어 희망을 전하는 메스, 좋지 않은 건 베어 내어만 하는 메스, 또 섬부르게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온다는 것을 아는 그런 메스를 들기 원한다.”

월간 문학세계에 등단한 김미화(35,사진) 시인의 당선소감이다. 김미화는 오랜세월 동안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자신을 받아 준 곳은 오직 포천뿐이라며 고향보다 더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김미화는 포천에 등지를 틀고 있던 20대 중반에 써 놓은 시 300여편 중에서 10편을 골라 보낸 작품 중 다섯 작품이 당선되어 등단하게 되었다.

었다. 이때는 사느냐 죽느냐로 깊은 고민을 할 때였다고 한다.

김 시인이 추구하는 작품세계는 한마디로 ‘人類愛’다. 인류애의 실천이 어려운 것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시인은 “포천은 축적고개를 기점으로 더 이상의 세계를 보려 하지 않는다”며 포천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작품활동을 함으로써 생애 쫓겨온 작가 자신을 인양하고 감추진 포천이 더 아름다운 도시, 돈 많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북대학 이관식 산업디자인과 교수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추천작가 등극



이관식 교수

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 이관식 교수(사진)는 지난7일 제4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포스터부문 작품을 출품하여 특선, 입선을 각각 수상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국내 최고 권위인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국전) 추천작가로 등극하게 되었다.

추천작가의 자격은 모두 10회 입상 중 연속 3회 특선 규정에 의해 산업자문부 승인 후 시가지인부분 추천작가(국전작가)가 된다. 이 교수는 여기에 해당되

어 이번엔 추천작가로 등극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및 국가의 산업디자인 경쟁력 및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1966년부터 산업자문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로 40회를 맞이했다.

시각, 제품, 환경, 포장, 산업공예 및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총 6개 분야로 시가지인부분 추천작가는 국내에 약 90여명으로 주로 대학교수 및 실무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수는 지난 2002년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국내에는 추천작가(박사학위)와 동등한 인정)와 박사학위를 동시에 갖춘 자는 10명 이내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소감에서 “시가지인이라는 늘 다양한 상황을 접하고 항상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추천작가 등극으로 보다 시가지인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활동은 물론

후진 양성에도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교육학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핀란드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국제디자인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 이관식 교수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주)중의계약 광고부, 그랜드 하얏트 서울 및 부산호텔 아트디렉터▶전국 대학생디자인공모전 심사위원장▶SOKI국제일러스트공모전 운영 및 심사위원장▶환경사랑 전국공모전 운영위원장▶포천시 환경공모전 심사위원장▶대한민국 디자인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경기도 평화통일 미술대전 디자인부문 운영위원장▶경기도 디자인 GG페스티벌 시가지인부분 운영위원장▶한국미술협회 포천지부 감사▶한국디자인협회 학회 홍보이사▶한국디자인협회 학회 상임이사▶환경실천연합회 포천지회장▶현, 디자인 트렌드 연구회 사무총장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제2회 포천학생예능경연대회’

### 미술 174명, 음악 61명 수상

경기도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은 지난 14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2회 포천학생예능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학교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이번 대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경연이 펼쳐졌다.

총 50개교 1천750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독창 및 개인종목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기악합주 및 리코더 합주, 합창 ▶포천실내체육관에서 미술부분의 경연이 펼쳐졌다.

특히 초등학교 합창부문에는 11개 학교 624명, 초등학교 피아노 독주부문에 19명이 참가해, 합주와 독주 부문에서 각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 보였다.

한편 이날 미술부문은 ▶한국화 ▶고무판화 ▶디자인 ▶서예(한글·한자) ▶소묘 ▶수채화 ▶만화(간편화)에서 총 174명이 입상했으며, 음악부문은 ▶리코더독주 ▶현악독주 ▶관악독주 ▶피아노독주 ▶성악독창 ▶리코더합주 ▶기악합주 ▶성악합창 부문에서 총 61명이 수상했다.

지역대 기자 94spice@hanmail.net

## ‘꿈을 짚는 사진쟁이’ 出刊

### 사진작가 강돈희 氏 첫 시집 출판기념회 성황



지난 18일 오후 3시 포천문화원에서 개최된 ‘꿈을 짚는 사진쟁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포천시 문화예술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 흉내를 내보던 한 사진쟁이는 자신 있다. 사진은 자식 같다. 자식 같은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앞으로 더욱 알차고 좋은 시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손진홍 마흔문화회장은 “성격이 깔꼼하여 진심 어린 시집을 갖추고 있는만큼 2.3집 계속해서 시집을 발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운택 포천문화원 부원장은 “향토문화의 파수꾼으로서 창조자로서 포천문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구 마흔문화회 고문은 “최근 하은 양근희 시인 탄생에 이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경사가 오늘 출판기념회”라며 “2.3집 계속해서 아름다운 시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은 “인간번뇌의 답을 물려준 강돈희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욱 포천문인협회 회장은 “좋은 글, 좋은 사진 남겨서 불거리, 읽을 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찬 포천예술인동우회장은 “포천예술인동우회에서 20여년 동안 함께 생활함으로써 각자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해주는 강돈희 씨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시 흉내를 내보던 한 사진쟁이는 자신 있다. 사진은 자식 같다. 자식 같은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앞으로 더욱 알차고 좋은 시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손진홍 마흔문화회장은 “성격이 깔꼼하여 진심 어린 시집을 갖추고 있는만큼 2.3집 계속해서 시집을 발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운택 포천문화원 부원장은 “향토문화의 파수꾼으로서 창조자로서 포천문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구 마흔문화회 고문은 “최근 하은 양근희 시인 탄생에 이어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경사가 오늘 출판기념회”라며 “2.3집 계속해서 아름다운 시집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석(石) 국제조각심포지엄’ 자원봉사자 모집

### 7월 1일까지 접수...중식비와 교통비 제공

포천시가 ‘포천석(石) 국제조각심포지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 모집인원은 행사 도우미 00명과 통역 9명(영어 6명, 일어 3명) 등이며,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일까지며 자

한 사항은 신청접수처인 포천시청 문화예술부서 (031-530-8063)로 하 연락한다.

포천시는 지원자 자격심사와 사전교육을 거쳐 다음달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와 중식비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도권지역 유명 관광지인 산정호수에서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30일 동안 열리게 될 포천석(石) 국제조각심포지엄은 포천시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예술 행사로, 국제작가 12명과 해외 5개국에서 온 5명의 작가들이 조각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대화를 통해 조각에 대한 관람객들의 지식과 교양을 넓힐 수 있도록 진행될 계획이다.

지역대 기자 94spice@hanmail.net

김진동 포천예총회장은 “인간번뇌의 답을 물려준 강돈희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분들의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욱 포천문인협회 회장은 “좋은 글, 좋은 사진 남겨서 불거리, 읽을 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찬 포천예술인동우회장은 “포천예술인동우회에서 20여년 동안 함께 생활함으로써 각자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해주는 강돈희 씨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초대 漢詩

菖蒲洗髮有名時 (장포세발유명시)  
창포로 머리 감는 이름가진 때에

角抵 韃妙手奇 (각저추미수기)  
싸움하고 그대뛰는 묘수가 기이하고나

自去自來飛燕好 (자거자래비연호)  
스스로 날아서 가고 오는 제비가 좋아보고

薔薇綻紫遺香充 (강미만자유향충)  
장미는 붉은 빛을 띄뜨려 향기가 진동하는구나

相親相近舞鸞宜 (상친상근무영의)  
서로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길매기춤을 추니 좋고나

### 吟端午佳節 (음단오가절)

千村柳茂鶯棲葉 (천촌유무영서엽)  
마을마다 버들이 무성하고 피꼬리 잎새에 새끼 드리우니

萬岳松高鶴隱枝 (만악송고학은지)  
만마데 높은 소나무기둥에는 학이 숨어 있고나

五月端陽佳節屆 (오월단양가절계)  
오월단오 아름다운 계절이 왔으니

古風民俗人知 (고풍양속인지)  
옛날의 좋은 풍속을 잊사옵나니 알고?

**崔宗圭**  
 韓國明倫會長

### 초대 詩 행복

조금씩 밀려 오는 봄들을  
이기지 못하고  
외자에 잠깐 앉아 깜빡 조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플다가 퍼뜩 뜰 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뻗어진 얼굴로 멍하게 손님을 맞는  
이것도 행복이지요.

오지 않는 손님 막연히 기다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발한 상상 한 조각  
시 한 줄 거침없이 써내려가면  
그것은 분명 행복입니다.

아무도 없는 빈 카페에서  
누군가 올려 놓은 글을 읽으며  
자기만의 시간을 잠시 가져보는 것  
이것도 행복의 하나입니다.

**강돈희**  
 미술문학회 회원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34)**  
**육사생도 참전기념비와**  
**‘김문한’ 생도 이야기**

때까지 적에게 준 손실은 막대하였다. 아군은 생도 27명만이 전사하였다.

육군사관학교의 ‘지(知)·인(仁)·용(勇)’ 정신을 실천한 첫 전투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포천군 포천을 신임의 김동진 이장님의 아들 김문한 생도 1기 생이 참전하였다는 점이다. 김문한 생도는 그 후, 소위로 임관 각종 전투에 참가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모범고급 장교로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예편 후, 대한 맹인복지회에서 봉사하시기도 한 김문한 대령은 매우 능능한 기상이다 정규 육사생도 출신 장교답게 그 모습이 군인정신의 표상이었다. 김문한 대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의 혁명의 부당성과 혁명 공약의 마지막 공약사항인 민간정부로의 정권이양을 주장하는 군 관계자들과 정 의로운 모임을 가졌었다는 사실도 아는 포천인들이 많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1950년 6월 25일 육군의 간성으로 입문을 2주일 앞둔 1기생과 입교 25일된 2기생 도합 597명의 생도가 육사의 학생이었는데 1기 생의 2/3 정도는 외출 중이었고 2기생은 자격사격(육해공군 모두 1회 실시)을 위해 영내 대기 중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은 ‘교무처장 조영 중령을 대대장으로 부대대장 소령 손관도 외 대위 최재영(S-1), 대위 이승우(S-3), 소령 최영규(S-4), 제1중대장 대위 송인률, 2중대장 소령 박용규, 3중대장 대위 이원업, 중화기중대장 대위 박정서로 지휘부를 구성, 1기생이 소·분대장 및 사수가 되고 2기생이 소총수, 분대원, 탄약수가 되어 25일 16시 기산리 쪽으로 출동하였다.

지도 한 장도 없는 위급상황에 긴급대치하는 작전은 무모한 듯 보였으나, 포천전투의 위급성과 수도 서울 사수 결의에 찬 생도들은 경찰과 합동작전을 전개 적군 제3사단 9연대(연대장 김만익)와 맞서 용감히 싸웠다.(200명의 적 사살)

김영신 생도의 증언이 이를 입증하였다. 끝내는 적과 백병전으로 맞서 싸웠다. 1:3의 감투정신으로 싸웠다.

19시까지 철수명령이 하달될